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0 호

2019 년 8 월 15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원칙 (WEPI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2.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10/24)
3. SDGs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7/31)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그린박스와 SDGs 이행 참여하는 파키스탄 청소년들
2. [Goal 1, 8,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국민연금공단
3. [발간] '2019 연례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SDG Report 2019)'

## ■ UNGC 회원 뉴스

1. 유한킴벌리, 아이 맡기고 늦게 출근...임산부는 재택근무
2.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
3. 한전 등 5개 공기업,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 ■ CSR 뉴스


1. 더 나은미래-UNGC 한국협회, CSR 강화 위해 힘 모은다
2. 'SDGs 달성' 더 많은 기후행동이 열쇠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소식

##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10/24)



###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2019년 10월 24일(목) 10:00-17: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1F 그랜드볼룸

---

#### 모시는 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글로벌 경제의 강화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IC Global Compact(UIIGC)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기업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며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IIGC 회원 기업 CEO,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300여 명을 모시고 '2019 UII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UII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기업 및 국제사회의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본 회의**  
기조연설  
UIIGC 한국협회 LEAD 회원 세레모니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기업 세레모니

**특별 세션**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임투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

**분과 세션**  
기업과 인권 • SDGs • 여성역량강화원칙

*Business Attire Required*



[\[원문보기\]](#)

## 2.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9/30)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에서부터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이르기까지 여권신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엔의 이니셔티브로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여성 기업인 지원, 그리고 직장, 업계, 지역사회 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2019년 8월 현재, 전세계 약 2,300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 참여 방법

- CEO 지지 서명서 및 참여 기업 정보 제출 (~ 9/30)

최고 경영자가 경영 전략 및 비즈니스 운영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동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서명서에 친필 사인

<https://www.empowerwomen.org/en/weps/signtheweps>

#### ■ 참여 혜택

- 성(性) 격차 분석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자가진단 이행
- WEPs 참여 및 성평등 지지 대내외 홍보, WEPs 지지 기업 간 네트워크 참여
- WEPs 연례행사 참여 및 젠더 이슈 관련 최신 동향, 이행 사례 자료 활용
- WEPs 로고 및 WEPs의 'We Support' 로고 사용 가능

#### ■ WEPs 참여 기업 세레머니 일정

- 행사명: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 일시: 2019년 10월 24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 (1F)
- 참석 대상: 기업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

### 여성역량강화원칙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 2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 3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4 교육과 훈련
- 5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 6 지역사회의 리더십 및 참여
- 7 투명성, 측정 및 공시



[원문보기]

## SDGs 실무그룹(Working Group) 2 차 미팅 결과 (7/31)



- 참석자: KT,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LG화학,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5인
- Co-Chair: KT 김윤정 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김경민 과장

UNGC 한국협회는 7 월 31 일 사무처에서 SDGs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의 1 부에서는 2019 HLPF 기간 UNGC 연례 지역 네트워크 포럼(ALNF) 시사점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2 부에서는 참여 기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범위 식별을 위한 가치 사슬 맵핑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순서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이 지난 7 월 뉴욕에서 열린 UNGC 연례 지역 네트워크 포럼(ALNF) 참석 후 논의된 글로벌 CSR 동향(△ 2030 Agenda 및 신기후체제, △ EU 비재무적요소 공시 의무화, △ ESG, SRI 확산, △ 기업과 인권 강화, △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강화, △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UN 차원에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UNGC 와 지역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 맞춘 여러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김경민 과장은 UNGC 에 참여 중인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가는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수란 과장이 SDGs 우선 순위 선정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범위 식별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SDGs 달성에 있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SDGs 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표들과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목표들을 소개한 이수란 과장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확인하고 해결한다면 긍정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전체 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최소화 하기위한 활동 시, 식별 기준과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서에 리스크를 공개하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트렌드 등도 공유되었습니다.



협회 이은경 실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70 여개 지역 협회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증대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Participants(특별회원) 수준의 높은 Tier 에 보다 많이 참여해 한국기업들도 글로벌 아젠다 수립에 동참하고 우수사례가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SDGs 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활발한 질의응답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SDGs 추진 방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선방안, ▲자사 전략과 SDGs 목표/세부지표 연계 방안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SDGs 이행의 글로벌 협력 사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SDGs 실무그룹은 UN 및 UNGC 에서 제공되는 SDGs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자들 간 상호 학습 및 사례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SDGs 인식조사 서베이를 진행해 10 월 24 일 개최될 UNGC Korea Leaders Summit 에서 우리기업들의 SDGs 이행현황 및 추후 계획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고,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다양할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 SDGs 소식

## 1. [SDGs 솔루션] 그린박스와 SDGs 이행 참여하는 파키스탄 청소년들



*청소년 참여 연구소, 그린박스(Green Box)는 파키스탄 청소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SDG 세부목표 4.7 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4.7 은 2030 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린박스는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세계시민의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기여 등을 교육하여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적 기업은 연중 내내 워크숍을 운영하며, 기업들과 협력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청소년 참여 행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파키스탄의 '파트너 펠로우십 (The Partner Fellowship)'은 30 명의 청년 사회 혁신가들과 함께 201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파키스탄 내에 지속가능한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움직임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30 명의 사회혁신가들은 200 여명의 커뮤니티 회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최대한의 영향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Why you should care

유네스코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이 기후 회복력을 지닌 사회를 형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합니다.



##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 양질의 교육

그린박스는 지금까지 13-18 세 사이의 청소년 1,000 여명을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인 **Footprint | Community Building Toolbox** 에 참여시켰습니다.

[\[원문보기\]](#)

## 2. [Goal 1, 8,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부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으로 2,231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수급자 477만 명에게 연간 21조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650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회적 가치 관련 정부정책, 사회책임경영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하여 경영목표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새롭게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인권, 안전 등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전략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SDGs 전략 및 이행 전략 및 현황

공단은 '100 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고유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목표 이행과 연계된 사업을 사회적 가치 전략에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생활 안전 강화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공단은 2012 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2018 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최대 90%로 인상하여, 신규 취업 근로자의 부담을 더 완화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2018 년 말 기준 전국 83 만 개소 사업장, 202 만 명의 근로자가 7,300 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 보험료를 최대 75%(최장 1 년)까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연간 40 만 명 이상의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금 수급권 취득 지원

공단은 고유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 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2018 년 말 현재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어르신 239 명에게 6.1 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 1 인당 월 평균 39 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노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정서적 지지 활동

공단은 고령·중증 장애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등을 통해 수급권을 확인하고, 상담과정에서 건강과 생활 상태를 파악,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전용품 제공,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고독사 방지를 위해 월 1~2 회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고 문화 활동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 년부터 총 8 회, 720 명에게 "공감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공단은 30년 이상 축적된 국민연금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부 일자리 정책지원 등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에 근무하는 1,2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간접고용이 아닌 “전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완료하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초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018년 신규 직원 5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이 총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 것은 민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발전 기반 조성**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옥 내 유희공간에 ‘NPS 카페 36.5’를 설치하여 기초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 신중양시장 등과 협약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물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전국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39개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소재한 지역의 안정적 자금운용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금융기관 전복 유치, 본부 제2사옥 신축 착공, 지역 IT 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전복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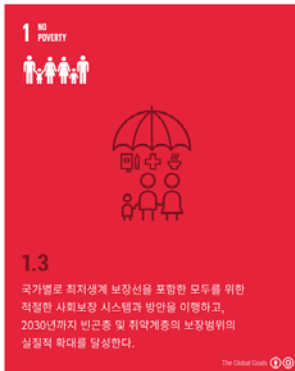
공단은 세계 3 대 연기금에 걸맞게 2013 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연금제도를 도입·확대 또는 개혁 예정인 국가들에게 한국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30 년 국민연금 시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해외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형 연금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제도 전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한 '2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4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사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 국민연금 제도운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About These SDGs Goals

### SDGs 세부목표 1.3은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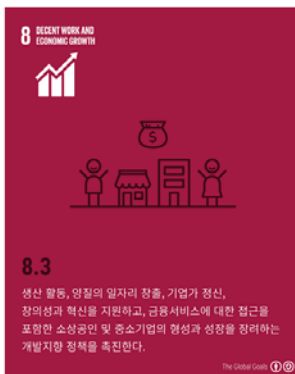


MDGs에 관한 고위급패널회담(2010) 결과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2011년에 유엔공개작업반을 구성하여 발족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CTAD),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유니세프(UNICEF)는 Post-2015 개발 의제에 관한 공개적업반으로 구성되어 Post-2015 개발 의제로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는 사회 보장(2012)을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양질의 기초 서비스, 산모 건강 서비스, 교육 및 영양공급까지 필수·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정책도구이지만 세계 인구의 80%가 광범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3번 목표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사회제도 도입이 아닌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비정규직 노동자, 이민자, HIV/AIDS 감염자, 자연재해에 노출된 인구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장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DGs 세부목표 11.a는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인간정주회의(UNCHS)에서 채택된 해비타트 의제(1996)는 소규모 및 주안 규모의 도시, 소도시, 마을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더욱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거주지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본 의제는 도시 및 농촌이 물자, 자원, 인구 이동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도시-농촌 간 연계가 거주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 및 경제적 기회의 부족으로 농촌과 도시 간 인구 이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한계에 부딪혔고, 농촌지역의 고용 및 교육 기회 창출 뿐 아니라 빈곤 퇴치 및 생활 여건 향상이 시급한 상태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본 의제는 각기 다른 경제·사회·환경적 요건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도시-농촌 간 연계의 보안을 추구하고, 지역·국가·대륙적 행동 계획을 통해 이러한 목표들 달성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에 SDGs 역시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지역 간 경제·사회·환경적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원문보기]

### 3. [발간] 2019 연례 지속가능 발전목표 보고서 (SDG Report 2019)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연례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는 SDGs 달성을 위한 진전과 아무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들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 년 8 월 발표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된 지 4 년이 지난 지금, 극심한 빈곤층의 감소, 포괄적인 예방접종, 아동 사망률 감소, 사람들의 전기 접근성 확대 등 일부 분야의 진전에 주목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전 세계의 대응 방향성과 충분하지 높지 않은 목표를 지적합니다.

"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오하고, 빠르고, 야심찬 대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

## 2019 SDG 보고서 주요 결과:

-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 악화는 시급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3/4 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은 도시보다 시골에서 3 배 더 높습니다. 청년들은(young people) 성인보다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1/4 만 장애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합니다.
- 2018 년은 기록상 지금껏 네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 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해양 산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6% 더 높으며 현재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은 2100 년까지 100%에서 1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990 년에 36%였던 극빈곤층의 수는 2018 년에 8.6%로 감소했지만, 빈곤 감소의 속도는 세계가 본질적 결핍, 폭력적 분쟁, 자연재해의 취약성 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감속하고 있습니다.
- 세계 기아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상호연계를 통해 목표들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며 건강과 번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785 MILLION** PEOPLE REMAIN WITHOUT EVEN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2017)



**2 OUT OF 5 PEOPLE** WORLDWIDE DO NOT HAVE A BASIC HANDWASHING FACILITY WITH SOAP AND WATER AT HOME (2017)

**1 OUT OF 4** HEALTH-CARE FACILITIES WORLDWIDE LACK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2016)

BY 2030, **700 MILLION** PEOPLE COULD BE DISPLACED BY INTENSE WATER SCARCITY

**673 MILLION** PEOPLE (9% OF THE GLOBAL POPULATION) STILL PRACTISE OPEN DEFECATION (2017)  
THE MAJORITY OF THEM ARE IN SOUTHERN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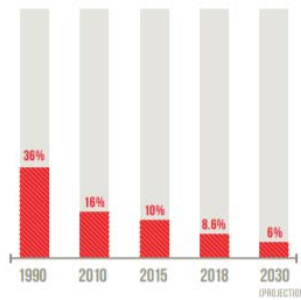


**2 BILLION** PEOPLE LIVE IN COUNTRIES EXPERIENCING HIGH WATER STRESS



##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THE WORLD IS NOT ON TRACK TO END POVERTY BY **2030**



**MORE THAN 90% OF DEATHS DUE TO DISASTERS OCCUR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55%**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NO ACCESS TO SOCIAL PROTECTION

**736 MILLION** PEOPLE LIVED IN EXTREME POVERTY IN 2015, **413 MILLION** IN SUB-SAHARAN AFRICA



# UNGC 회원뉴스

## 1. 유한킴벌리, 아이 맡기고 늦게 출근...임산부는 재택근무

### 유한킴벌리, 아이 맡기고 늦게 출근...임산부는 재택근무

저출산시대 주목받는 유한킴벌리

임신하면 간담회 마련해  
임직원 축하받는 기업문화

시차 출퇴근제로 육아도움  
사내 육아전문가가 상담  
육아휴직후 복직률 98%  
"회사 배려에 자부심 높아"

권한을 기자 입력 : 2019.08.01 17:09:55 수정 : 2019.08.01 20:46:33



△유한킴벌리 본사에 마련된 임산부 우선석에서 임산부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유한킴벌리]

-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한 여성의 비율이 누적 98.2%로 집계.
-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한킴벌리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했던 여성 직원 전부가 복직한 셈
- 회사는 2002년부터 18년째 전문가 상담제도를 도입, 육아기를 포함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전문상담을 제공
- 회사 관계자는 "1993년부터 유연근무 방식을 시행해왔고 생산현장의 4조 2교대 근무를 비롯해 관리직의 시차출퇴근제, 영업직의 현장출퇴근제 등 전 부문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함

## 2.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

### [단독]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한다

4월 오창·청주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완료...10~11월경 중국·폴란드 사업장 실시

최종수정 2019-08-08 17:20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사진제공=LG화학

- LG 화학은 중국과 폴란드 등 해외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0~11 월경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
- 인권영향평가는 LG 화학이 개발한 각 영역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평가지표 영역은 △인권경영 체제 △인도적대우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등임.
- 현재 전지와 첨단소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인권 점검에 나섰고 향후 석유화학 등 기타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

[이투데이](#)

### 3. 한전 등 5개 공기업,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 한전 등 5개 공기업,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8.14 08:38 최종수정 2019.08.14 08:38

---

-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감사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 각 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교차(합동)감사를 위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
-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각 기관 감사인들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상호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 CSR 뉴스

### 1. 더나은미래-UNGC 한국협회, CSR 강화 위해 힘 모은다

# 더나은미래-UNGC 한국협회, CSR 강화 위해 힘 모은다

장지훈 기자 POSTED ON 2019년 8월 16일



16일 서울 중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실에서 상호협력(MOU)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금교돈(왼쪽)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 겸 더나은미래 발행인과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더나은미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공동 사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금교돈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 겸 더나은미래 발행인은 16일, 상호협력(MOU)을 위한 협약식을 가짐.
- 더나은미래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사회적책임(CSR)의 질적 성장을 핵심 목표로 ▲사회책임·지속가능성·사회적경제·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보고서·간행물·연구자료 발행·교육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임.

[더나은미래](#)

## 2. 'SDGs 달성' 더 많은 기후행동이 열쇠

### 'SDGs 달성' 더 많은 기후행동이 열쇠

인류 위협 기후변화, 미래 전망 암울- 전 세계 야심찬 계획 필요

박지수 리포터 | 승인 2019.08.07 18:0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보고서에는 SDGs 달성이 선행되어야 다른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사진출처=WMO>

- 모든 형태의 빈곤 및 불평등 퇴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가 발표됨.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300 만~500 만년 동안과 비교해서 최고 수준에 다달았으며 최고치를 경신한 온실가스 농도와 함께 지구 온도는 3°C가량 높아졌고 해수면은 10~20 미터 더 높아짐.
-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2019 년이 지구의 가장 따뜻한 5 년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야심찬 계획과 가속화된 조치의 필요성과 더 많은 기후 행동을 촉구함.

[환경일보](#)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8 월 1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 2. COP/COE 제출회원

8 월 1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두산
- KT
- POSCO
- NH 투자증권
- 신용보증기금
- DGB 금융그룹
- GS 칼텍스
- SK 건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ol>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li> <li>•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li> <li>•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li> </ul>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a href="#">learn more</a>)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DB 산업은행,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전산업개발,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전자, 우리은행, 두산, CJ 제일제당, 교보생명보험, 케이티에스테이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비타트,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고려제강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